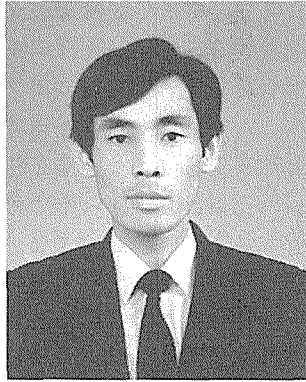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협력 · 자원개발과 전망



박 동 철
〈산업연구원 · 연구원〉

1. 머리말

최근 남북간의 직교역 성사와 남측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를 신현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양측의 무역상사가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 및 시멘트를 구상무역방식에 의하여 직교역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4월초에 정부가 공식 승인 하므로써 그동안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를 넘어서 직교역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최근 대북한 직접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직교역 실현과 더불어 자본협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1984년 5차례의 경제회담 개최를 통하여 그 가능성이 타진된 바 있었으나 남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경제교류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북한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하여 활로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현안으로 되었던 정치, 군사문제와 물자교역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7·7선언 이후 부진했던 간접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협력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北韓이 추구해온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의 한계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北韓의 주요 우방국인 소련이 한국과 국교수립을 통하여 정치 및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中國 또한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경제협력을 가속화 하므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美日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하여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지난해부터 日本과의 국교수립을 위한 예비회담을 성사시키면서 최대의 현안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아울러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축적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직교역과 자본협력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자원의 공동개발, 남북한 합작에 의한 중·소에 공동진출, 최근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한국·북한·소련·중국·일본의 경제 공동체 형성)구축에 공동진출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남북한 물자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가능한 경제협력 분야를 분야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 물자교역 현황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1988년 7월 우리정부의 7·

7선언 발표 이후에 홍콩, 日本 등 제3국에서의 간접 교역 형태로 이루어 졌다. 즉 정부는 동년 10월 7일 남북한의 물자 및 경제적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발표하고 북측의 물자교류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었으나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10월 7일 개방조치 이후 연말까지의 교역실적은 반입 4건에 약 100만 달러 규모에 겨우 이르렀고, 품목도 무연탄, 전기동, 아연괴, 냉동명태, 명란젓, 도자기, 인삼주 등 소수의 광물자원과 토산물에 불과하였다. 1989년 이후에는 반입 품목이 점차 증가함과 동시에 반출품목도 소규모 단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역규모도 증가하여 1990년에는 약 2,5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1991년 3월말 현재에는 반입 63건 반출 5건에 약 4,500만 달러의 교역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표1). 1989년 이후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반입품목은 철강재, 아연괴 등 중간 원자재(56%), 한약재, 농수산물 등 1차상품(39%)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반출품목은 폴리에틸렌, 테트론섬 등 공업용 원재료(58%)와 설탕, 세탁비누

등 생활필수품(13%), 기타 가전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남북 물자교역의 구조를 살펴볼 때 당분간 北韓은 원자재를 남한은 완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北韓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남북한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수평적 교환을 통한 상호 보완하는 측면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교류와 협력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책정하였으며, 최근 직교역에 따른 구상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직교역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北韓의 연간 무역규모(50억 달러 '89년)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소련(12억달러), 중국(5억달러), 日本(4억5천만 달러)과의 교역규모등을 고려해 볼때 당분간은 4~5억 달러를 초과하기 어렵겠지만 향후 교역확대가 이루어지고 북한 교역규모가 확대되면 교역규

〈표-1〉

남북한 물자교역 현황(1989~'91)

〈반입〉

(단위 : 천달러)

	신 청		승 인		불 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1988	4	1,037	4	1,037	-	-
1989	57	22,235	57	22,235	-	-
1990	81	22,133	76	20,879	5	1,254
1991	63	35,457	57	33,650	6	1,807
計	205	80,862	194	77,801	11	3,061

〈반출〉

(단위 : 천달러)

	신 청		승 인		불 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1989	1	69	1	69	-	-
1990	4	4,731	4	4,731	-	-
1991	5	10,376	4	10,191	1	185
計	10	15,176	9	14,991	1	185

모 확대 및 교역품목 다양화도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3. 광물자원 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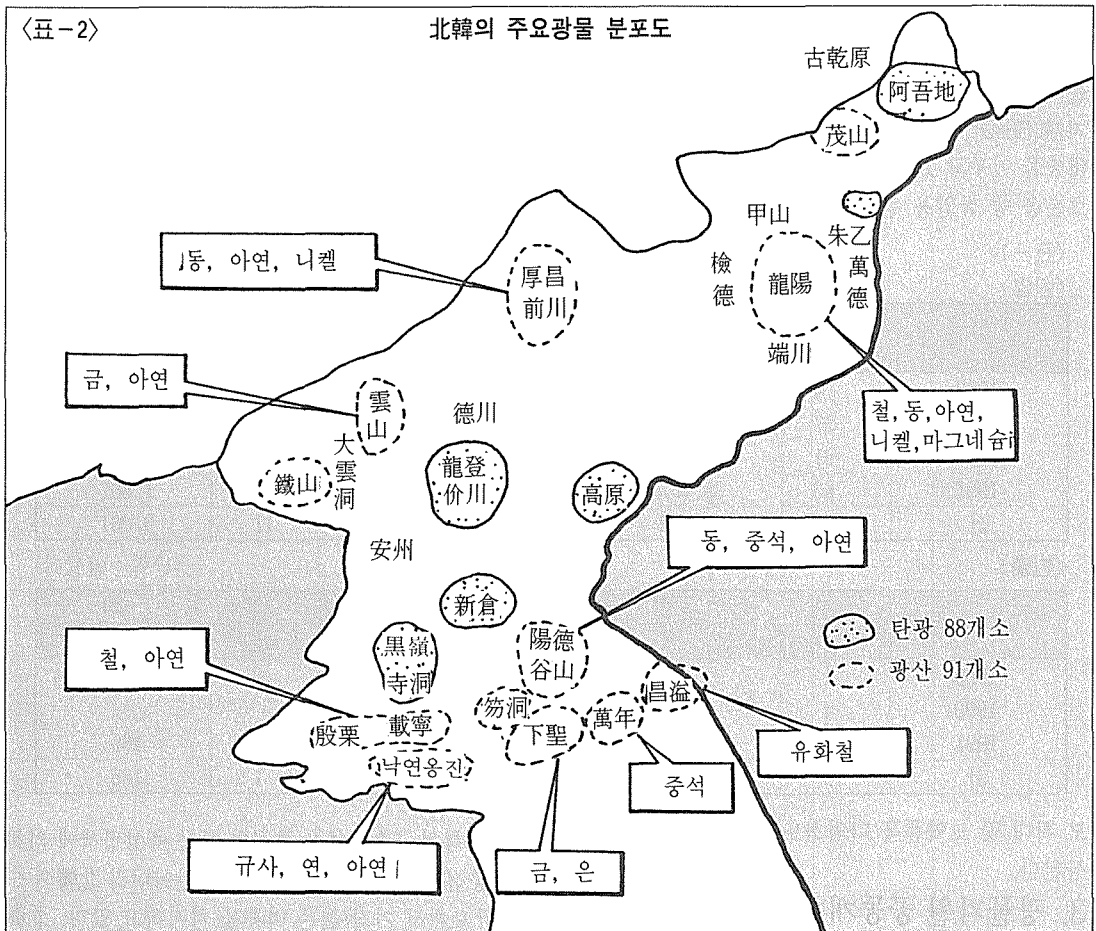
北韓에는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

으며 특히 금속광물은 중공업 부문 육성정책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개발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北韓의 수출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北韓은 70년대까지 광물자원의 1차상품 수출에 호조를

보였으나 80년대초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부진에 직면한 이후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에서는 광물자원의 고 가공품 수출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北韓은 현재 연간 수출 중에서 광산물이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北韓의 주 수출품인 철광석, 마그네샤 크링카, 유연탄 등 3종류의 광물만으로도 약 2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이 추진되어 북한산 광산물을 직접도입하는 경우 수송비 절감을 통한 가공품의 원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北韓도 남측의 가공생산 기술습득에 의하여 생산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므로써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상호 경제성이 충분한 北韓의

주요 광물자원 분포현황과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

- ①철광석 : 함경북도 무산군에 11~12억톤의 자철광이 매장되어 있으며, 황해남도 은율군과 재령군 일대에는 갈철광이, 평안북도 덕선광산 일대와 강원도 창도군에도 상당량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 철광석 개발은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은율, 재령, 하성, 사동, 이원, 덕성, 용원, 덕산, 봉산 등 22개 광산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중 무산광산은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동시에 세계적인 노천광산으로 연간 생산량이 550여톤에 이르고 있으며,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에 1,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②석탄 : 무연탄은 평안남도 증산, 덕천, 강동, 개천



〈자료〉 國土統一院, 「北韓의 資源經濟」, 1988.

군 등과 평안북도 구양, 함경남도 고원, 강원도 천내, 자강도 전천, 평양 등지에 대량 매장되어 있고, 유연탄은 함북 은덕군, 아오지 일대를 비롯하여 새별, 회령, 중성, 平南 안주, 함북 봉산, 함남 영흥지역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매장량은 147억톤에 달하여 이 중에서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은 79억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지역에는 양강도 일대를 제외한 전역에 대규모 석탄석 광산이 개발되어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에 12,000만톤의 생산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③마그네사이트 : 함경남도 단천에서 양강도의 백암에 이르는 지역에 36억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백금산 일대의 노천광산은 길이 7,000m, 깊이 20~100m에 달하는 대규모 광산으로 유명하다. 이밖에도 함북 김책, 길주, 황해남도 일대에는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대부분 함남 단천군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광산으로는 용양, 남계, 대흥, 생장, 근양 등이 있다. 특히 단천지역의 용양광산은 품질이 우수한 마그네사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연간 원광석의 생산량은 500만톤, 마그네사이트링카는 2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원광석과 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탄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마그네사이트 광산개발, 마그네사이트링카, 내화벽돌 생산분야에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④연, 아연광 : 연, 아연은 금, 은과 함께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 검덕광산에는 9km에 걸친 광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된 광산으로는 최대규모의 검덕광산과 황남 낙연, 평남 성주, 승창, 자강도 규생, 봉운, 황북 사동, 미광산이 유명하다. 1989년 현재 연, 아연의 생산능력은 8.7만톤, 29.5만톤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 아연은 자동차 부품에서 중요한 축전지와 아연도강판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공업발전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합작개발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⑤금, 은 : 금과 은은 평안남도 문산, 대유동, 삭주 지구 및 함경남도 상능, 황북 사동, 대안, 황남 옹진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 아연 산지에서도 매장되어 있다. 금광으로는 운산금광과 대유동 금광이 유명하였으나 그동안 개발부진으로 쇠퇴 일로에 있다가 '86년부터 제일 조총련계 상공인과 합작으로 운산금광을 다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함남 상능, 황북 사동, 대안, 황남 옹진이 크게 개발되어 있으며, 기타 전국 곳곳에 중·소형 금광이 산재해 있다. 은은 평남의 성흥광산이 가장 유명하고, 함북 나진시의 낙산, 황북 사동, 평북 천파광산 등이 대규모로 개발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대안, 성수, 대유동, 운산, 문예, 광산 등이 유명하다.

⑥동 : 동은 양강도 갑산, 자강도 후창, 화평, 함남 단천 등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확인 매장량은 1억8,000만톤에 달하고 있다. 양강도 갑산, 화평광산, 함북 허천군 만덕, 상능 광산, 황북 사동광산 등이 주요 생산지역이며, 이중 연간 280만톤의 광석 처리능력을 가진 선광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능광산이 가장 규모가 크다. 1989년 현재 전기동의 생산능력은 90만톤에 달하고 있다.

北韓은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에 철강1,000만톤, 비철금속 170만톤, 석탄1,200만톤의 광산물 생산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탄광 확대와 새로운 탄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석탄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주, 순천, 덕천, 북창 등 북부지구 탄광의 확장공사와 새로운 탄광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철강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책제철소 2단계 공사의 조기 완공으로 500만톤 생산규모를 확장하고 황해제철, 청진제강소 등을 확장하는 동시에 무산광산등 철광산을 확장하고 있다. 비철금속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덕, 단천광산 등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생산량 목표는北韓의 자력갱생에 의한 국내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확대 보다도 현재 각 산업부문에 필요한 생산재 도입을 위하여 광물자원의 생산과 가공품 생산증대가 필연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北韓은 매년 소련, 중국, 일본에 약 7억달러의 광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광산품의 가공

품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중·소·일 3국에 대한 수출능력과 생산규모 등을 고려해 볼때 양측이 北韓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측의 주요 수입 광물자원인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연, 아연, 전기동을 합하여 매년 약 2억 달러어치의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측의 기술을 이용한 고가공품 합작생산을 시도하여 공동수출도 유망하리라 본다.

4. 관광자원 공동개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초연설에서 밝힌 관광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코스 뿐만 아니라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서부지역 관광개발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금강산 공동개발 계획은 '72년 '7·4공동선언' 이후 한때 논의된 바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88년 7·7선언 이후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에 금강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90년 5월 16일 현대그룹이 北韓에 개발장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언론이 보도화 하므로써 북측의 장비수락 거부로 다시 무산되었다. 금강산 공동개발은 남측의 설악산, 소양호 그리고 남북한 공동지역인 민통선을 포함하여 금강산을 잇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구상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공동개발계획의 일부에 속하는 설악산, 소양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기초설과 위락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春川, 강릉, 속초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화진포 개발과 철원철도 복구사업 계획도 착수하였다. 한편 北韓도 이미 원산-금강산 연계교통체제를 비롯하여 금강산 진입시설과 일부 위락시설 정비 확충을 착수하였으며,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산 개발계획은 관광산업 그 자체가 비정치적이며 인적교류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우선 실시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반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상호간의 경쟁내지 소모전을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협조관계를 추구하므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재 금강산 개발에는 대략 5천억원이

소요되며 연간 약 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예측하고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5. 해외에서의 에너지 공동개발

北韓의 에너지 공급은 풍부한 석탄과 수력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北韓이 1984년 제2차 7개년 계획경제 달성 이후에 발표한 전력생산 능력은 500억kW였으며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1,000억kW의 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 北韓은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87년 5월 압록강 상류에 중국과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길림성의 임강과 평안북도 의주에 30만kW와 10만k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한소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북한의 에너지 공동개발 차원에서 공동으로 시베리아에 진출하여 풍부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경우 양측이 모두 새로운 에너지 대체공급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남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이 대규모의 천연가스 와 北韓에 풍부한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여유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北韓으로서는 현재 석탄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시설이 경제규모의 진화,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 에너지원의 수요증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韓은 석유의 일부를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석유수입 대금을 경화결제요 구받고 있기 때문에 외화사정이 심각한 北韓으로서는 석유도입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중국의 원조로 '80년대 초 신의주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중국산 원유를 매년 약 1,200만톤을 수입, 정제하여 국내 석유수요의 40~60%를 충족시켜 왔으나, 中國내에서도 석유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매년 석유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원유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시베리아에 진출하여 석유

도입을 추진한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맺는말

지금까지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하여 논의된바 있는 남북한물자교역 추진방안 중에서 자원의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외에도 주요 제조업 분야의 합작,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은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정치·군사문제 및 물자교류문제를 동시에 추진할것을 합의한바 있으나 그동안의 회담을 통하여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이라는 입장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특히 北

韓은 지난 4월초에도 이번 5월 22일~25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정치적인 문제로 수락거부를 간접적으로 밝힌바 있다. 즉 北韓은 최근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에 대한 분위기 고조와 북한 내부의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면서 회담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은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84년 공포한 합영법을 통하여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자본과 기술협력에 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日本과의 국교수립을 통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美-北韓간의 지속적인 외교관 접촉을 통하여 고립화 탈피와 경제협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불래 남북한의 전반적인 교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유국 동향□

소련의 석유수출 현황

격감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소련의 석유수출이 아직은 크게 감소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국내석유수요감소 때문으로 소련의 위약한 석유수출여건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 석유소비가 감소된 주원인은 소련의 경제불황때문이다. 91년 1/4분기 소련의 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 정도 감소하여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소련의 석유생산량은 작년의 11.4백만 B/D에서 10백만 B/D~10.9백만 B/D로 광범위하게 전망되고 있지만 대규모의 파업사태나 정치위기가 없는 한 10.5~10.9백만 B/D의 생산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내 석유소비는 작년의 8.4백만 B/D에서 7.5~8.0백만 B/D 사이로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따른다면 적어도 올해는 당초 예상되었던 급격한 석유수출감소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석유생산과 소비의 축소균형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취약점이 많다. 첫째는 소련 국내정치의 불안요소때문이다. 보수·개혁파의 대립, 공화국 분리운동 확산에 따른 무력충돌 가능성,

지난 3월부터 일어나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탄광파업의 재발 및 확산 가능성 등으로 소련의 석유생산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다. 둘째는 경제불황으로 줄어든 석유소비가 탄광파업의 확산으로 석탄공급이 불안할 경우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두달간의 탄광파업사태는 파업의 기간이나 규모로보아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현상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업이 다시 재발되어 대규모로 확산된다면 석탄의 대체재로서 석유의 소비가 촉진될 전망이다. 소련내에서 석탄의 10% 공급감축은 석유 50만 B/D의 소비가 요구된다는 분석도 있다.

소련의 경화결계 요구에 따라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소련과 동구 유럽간의 석유교역도 아직은 계속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코메콘(COMECON)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소련에서 동유럽으로 수출되는 석유는 시장가격을 반영, 대폭 인상되었고 결제조건도 구상무역형태나 루블화에서 경화로 바꾸었다. 따라서 외화가 부족한 동유럽 諸國은 소련에서의 석유수입을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련과 동구권과의 석유교역량이 감축되는 뚜렷한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1/4분기에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소련산 원유도입량은 다소 감소되는 영향을 보였으나, 폴란드는 '90년 평균 도입량을 상회하는 약 26.5만 B/D를 도입하였고 체코는 당초의 계약량인 11만 B/D보다 많은 약 15만 B/D를 도입하였다.

(에너지동향)